

주요 내용

■ 유로화 약세의 영향과 시사점 ■

유로화 약세

- (동향) 출범 초 美달러화에 버금가는 기축통화로 발전할 것이라던 유로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 달러당 1.05대에 머물고 있음

영향

- (보호무역주의 자극) 유로화 약세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증가는 유로존의 경기 활황에 기여할 것이나,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자극할 우려가 있음
- (엔화 강세 유도)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는 투자가들로 하여금 유로화 표시 금융 자산보다 엔화 표시 자산을 선호하게 하여 엔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음

시사점

- (환차손에 대비) 유로 지역에 대한 국내 수출이 증가세에 있는 만큼 향후 유로화의 환율 변화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
- (非가격경쟁력 강화) 유로 약세로 인한 수출 위축에 대비, 제품 마케팅 및 브랜드 이미지 확보 등 유럽 지역에 대한 非가격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함
- (탄력적 금융정책) 통화당국이 정책 타켓을 통화지표, 이자율, 인플레이션 등으로 명시적으로 시장에 언명하기보다, EMU 불안이나 유로화 급락시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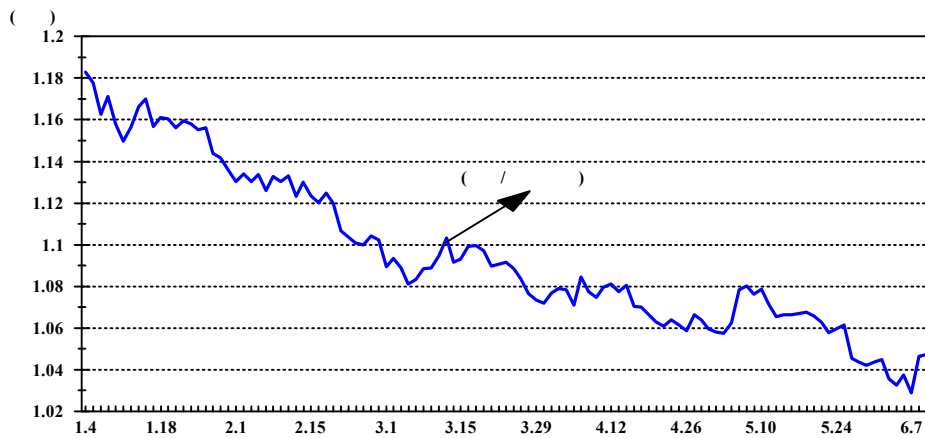
유로화 약세의 영향과 시사점

양 두 용, 양 성 수

동향

- 출범 초 美달러화에 버금가는 기축통화로 발전할 것이라던 유로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화 신용도가 크게 낮아졌음
- 유로화는 연일 출범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여 1.03달러/유로 대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들어서야 1.05대로 회복되었음
- 유럽중앙은행(ECB) 관계자들은 간간히 구두개입(verbal intervention) 의사를 표명했으나 시장참가자들은 유럽 지도자들이 유로화 약세를 비교적 방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

< 유로화 출범 이후 달러/유로 환율 추이 >



약세 원인

- 유로화 약세는 그간 코소보 사태 악화, 유럽 경기 침체, 미국 금리 상승 조짐 등에 기인함
- 코소보 사태의 악화로 인해 발칸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불안정이 유럽으로의 자본 유입을 축소시켰음

-
- 또한 유럽의 상대적인 경기 침체와 미국 금리 상승 조짐으로 인해 유럽 지역의 자본 유입은 크게 위축된 상태였음
 - 유로 지역의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경제 침체가 유로화 약세를 더욱 확산시켰음
 - 전체 유로권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의 경기부진은 유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
 - 독일의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과 달리 0.4%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5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%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,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사회보장제도나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

영향

- 유로화 약세로 인해 1999년 유로 지역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는 1,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
 - 유로 지역의 환율 절하로 인한 수출 확대는 향후 유로 지역의 경기 활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
 - 반면 이러한 유로 지역의 경상 수지 흑자 확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자극할 우려가 있음
-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는 간접적으로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있음
 - 유로화 약세는 국제 투자가들로 하여금 유로화 표시 금융 자산보다는 엔화 표시 금융 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있음

전망

- 단기적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지속할 것이나 중·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됨

- 유로화는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이지만, 수출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반등 양상을 보일 것임
- 향후 유로가 달러화 parity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이나 하반기 들어서야 유럽 경기의 소폭회복으로 연초 출범수준인 1.16선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
- 그러나 지표의 회복세는 이어지더라도 유럽의 구조적 문제인 고실업과 노동시장 경직성, 그리고 EMU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로화가 달러대비 크게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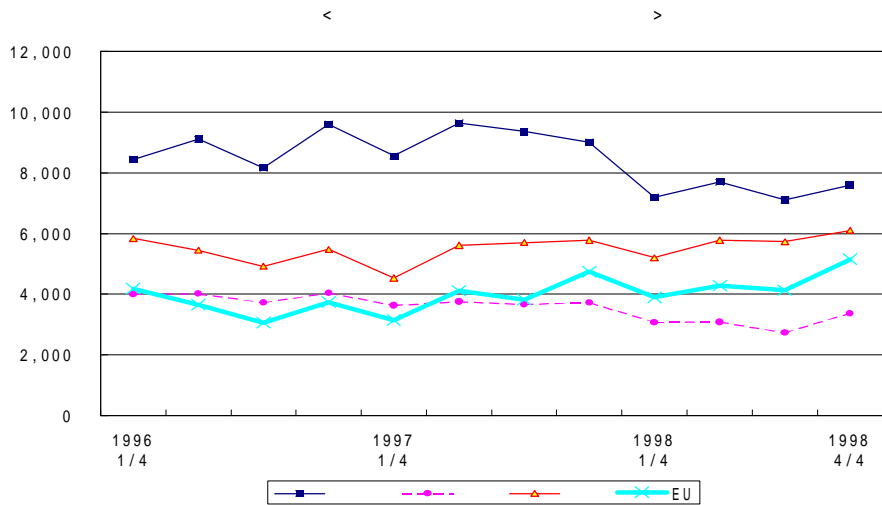
< 달러/유로 환율 장기 전망 >

뉴욕시장	99년 상반기	99년 하반기	2000년 상반기	2000년 하반기
현물 환율	1.03	1.16	1.18	1.25

주: 기말 기준임. EMU 체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수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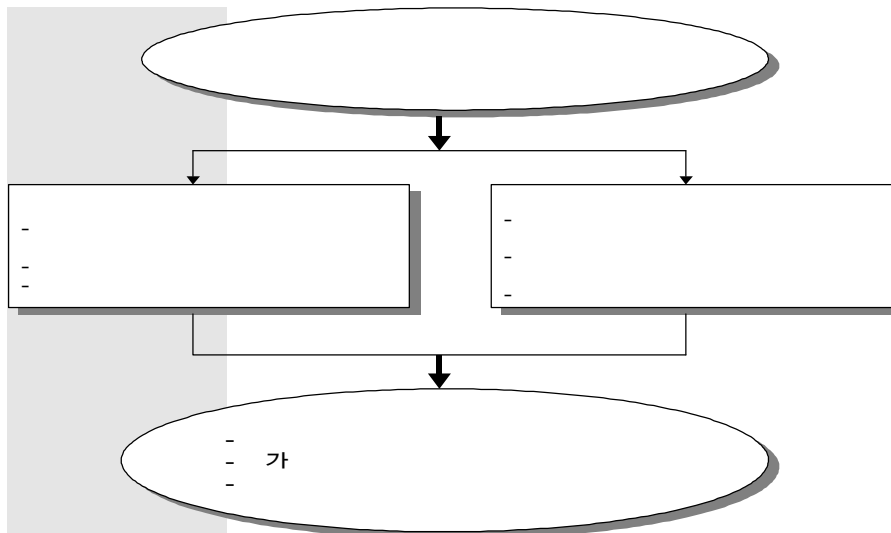
시사점

- 유로 지역에 대한 국내 수출이 증가세에 있는 만큼 향후 유로화의 환율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
 - 현재 우리의 對EU수출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, 98년 4/4분기 현재 51억 5,700만 달러를 수출하여 미국 이상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
 - 따라서 향후 유로화에 의한 결제가 확산된다는 전제하에 유로화 환율 변화에 대한 환차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임
 - 단기적으로 유로화 약세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거래상 유로화 수취가 예상될 경우 달러 매입/유로 매도의 선물환거래가 필요하며, 연불금융의 경우에는 유로화가 중장기적으로 강세로 전환할 것이나 올해까지는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에 응해야 할 것임
- 유로화 약세로 인한 국내 수출 위축을 대비하여 유럽 지역에 대한 비가격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
 - 향후 주요 선진국 시장의 공략에 있어 유로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인 바 유로 지역에 대한 국내 제품의 마케팅 및 브랜드 이미지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



-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 필요성 인식

- EMU의 불안정은 미 금리 인상이나 위안화 절하 등과 같이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, 국내 환율 및 금리 안정은 물론 외환보유고의 안정적인 유지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
- 통화당국이 명시적으로 통화지표 타게팅이나 이자율 타게팅,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시장에 언명하기보다는, EMU 불안이나 유로화 급락시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통화 금리정책을 운영해야 함



(yangdy@hri.co.kr ☎ 724-4057, yangs@hri.co.kr ☎ 724-4017)